

# 조선대, 다시 분쟁 휩싸이나

## 이사 선임 놓고 갈등

22년간의 임시이사 체제를 마감하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 조선대학교가 다시 분쟁에 휩싸이고 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2월 31일 정이사 7명을 승인 통보한 이후, 올해 2월 1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주광일씨를 추가로 정이사로 추가 선임하면서 촉발되었다. 이러한 정상화의 과정에서 전호중 총장과 직일노조는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고)박철웅

씨의 장녀인 박성숙, 박성섭씨가 추천한 주광일 이사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4일 오전에는 조선대학교 본관 회의실에서 '조선대학교 법인 정상화에 대한 광주시당 출마 후보자 초청 기자회견'을 열어

다가오는 지자체 선거에서 핵심이 수화될 시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전남 지역의 여론은 또다시 분쟁이 일어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오태근 기자 dtg@eduyonhap.com

## 광주 초등생 무상급식 2014년부터 전면 실시

2104년부터 광주지역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광주시교육청은 4일 광주교육정보원에서 각급 학교 영양교사(사)와 학부모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0년 학교급식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올해 121억 원을 투입해 1-2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매년 한 학년씩 단계적으로 늘려 2014년에는 430억원을 들여 모든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또 이같은 단계적 무상 급식과는 별도로 올해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 14곳(초교 11곳, 중학교 3곳)과 장애인, 체육 고 등 특수교육 대상자는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자녀 3만 4천여명에 대해서도 초·중·고교 등에 관계 없이 무상급식비용 총 144억 원을 지원한다. 오태근 기자

## 장애 극복, 희망 찾아 세상으로

광주세광학교 고3 양형식 학생, 대구대 특수교육과 입학  
지난 9일 졸업식을 한 광주세광학교(교장 김경욱) 양형식(남, 고3) 학생은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진학예정이다. 산소 과다 공급으로 인한 미숙아만장증으로 한 쪽 눈을 실명하고 시각장애특수학교인 본교에 진학하여 특수교사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일반학교에서 시각장애로 인한 따돌림과 냉정한 시선을 받고 힘들어할 때 한 살 터울의 누나가 우애와 애정으로 눈이 되어준 것이 힘이 됐다. 이 학교 고등부로 전학은 이후에는 친구들과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학생회장도 하는 등 학업 면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광주세광학교의 남다른 정보화교육을 통해 2008 SK텔레콤 장애청소년 IT챌린지 정보검색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여 미국연수를 다녀왔고, 제9

회 광주교육정보대상 학생부문 우수상, 자랑스런 광주학생(실력부문) 선정, 독서활동을 통한 각종 글짓기 대회 수상 등 총 7회의 교육감표창 수상경력이 있다. 양형식 학생은 해외 연수를 통해 다양한 복지시설과 사회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껴 자신이 사회에 나아가 장애를 겪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특수교육과에 진학하게 되었으며, IT분야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자 하는 꿈을 키워가고 있다. 세광학교에서 선·후배들과 함께 보낸 시간과 선생님들께서 가르쳐주신 많은 것들은 인생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보물이라고 한다. 시각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여 자리나는 후배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기 기자 ksk@eduyonhap.com

## 나눔과 보람의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교육청, 2010 학생 봉사활동 워크숍 개최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모임이 지난 3일 나주 중흥골드스파에서 열렸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권한 대행 부교육감 노일숙)은 2월 3일(수) 나주 중흥골드스파에서 나눔과 보람의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2010 학생 봉사활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도내 고등학교 교감 및 지역교육청 업무담당 장학사 1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워크숍에서 김승희 교육국장은 격려사를 통해 시간 채우기식의 형식적인 봉사활동을 지양하고, 우리 학생들이 봉사활동의 참뜻을 체험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학생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학생·학부모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이라는 주제 강의 및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2010년 봉사활동의 추진 방향과 세부 내용 등에 대한 토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전남청소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주관하는 학생봉사활동 사례와 참여 방법 등의 안내를 통하여 외부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생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눔과 보람의 학생봉사활동'이라는 장학자료를 제작·배부하여 체험중심의 다양한 봉사활동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2010년에는 보다 실질적이고 보람 있는 학생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만철 기자 jmc@eduyonhap.com

## 광주 효사랑 남구방과후 학교지원센터 상담 프로그램 운영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는 효사랑남구방과후학교지원센터(센터장 서부교육장 양세열, 남구청장 황일봉)는 2월 2일부터 2월 23일까지 매주 화요일 2시간씩 돌봄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방법이 가장 및 저소득층 아동으로 구성된 돌봄센터 이용 아동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자신의 꿈을 찾아 실천하는 자기 주도적 생활습관을 가진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장기 경기 침체로 광주지역 대학내 기숙사 선호 증가

새 학기를 앞둔 대학생들이 과거 학의 원룸형 오피스텔을 선호하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고시원과 대학 기숙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장기기간의 경기 침체의 여파인 것으로 보이며,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학 기숙사들은 밀려드는 지원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용능력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지역 대학의 경우, 전남대 기숙사가 4천190명 수용정원이 모두 마감됐고, 조선대 기숙사도 1천26명 수용정원이 모두 마감됐으며, 여타 대학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다. 오태근 기자

## 전문계고 해외 인턴십 참여학생 영어 사전교육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안순일)은 '전문계고 해외 인턴십' 참여학생의 영어 사전교육을 위해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5주간 조선대학교 언어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계고 해외인턴십 사업은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시가 공동으로 2010년부터 3년간 글로벌 기능인재 양성과 전문계고 위상 제고를 위하여 호주 기술전문대학과 현지 산업체 인턴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전교육과정 32명을 선발하여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이 중 성적 우수 학생 10명을 최종 선발하여 해외 인턴십을 실시하고 현지 기업에 취업시킬 예정이다. 이번 위탁교육은 광주지역 전문계고 8개교에서 용접, 전기, 자동차, 요리, 그래픽디자인 등 9개 분야 32명을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누어 원어민 강사의 영어 회화교육을 실시한다. 영어 구사 능력이 현지 적응과 산업체 인턴십 과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원어민 강사의 위탁교육으로 영어 구사 능력 향상은 물론 외국 인과의 관계 형성 등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순기 기자 ksk@eduyonhap.com

## 교육협력 길 열렸다

광주시교육청,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교육협력 MOU체결



◆안순일 광주광역시교육감(사진 왼쪽)과 광주인력개발원 김용만 원장(사진 오른쪽)이 협약식을 가진 후 협약서를 들어보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순일교육감은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에서 상호 교육협력 및 교류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교육, 연구 및 기자재활용 등에 관한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을 실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에서 전문계고 학생 및 광주출신 학생들이 무료로 기능훈련을 받고 지역의 우수 업체에 적극적인 취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인력개발원 김용만원장은 전문계고등학교 교원의 직무연수 지원과 전문계고 학생들의 기계분야 기술훈련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며 상호 적극 협력을 통해 취업에 희망하는 학생들이 전원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역설했다. 광주시 안순일교육감은 '직업교육과 감성교육'이란 제목으로 재학생들을 대상 특별강의 중 기

능습득을 위한 열정과 의지를 갖고 성공적인 기능인이 되길 강조하면서, 광주지역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광주인력개발원의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인력개발원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설립된 공공 직업교육훈련 기관으로서 전문학사 학위와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문취업을 보장하며, 모든 경비가 국비 지원으로 교육되고 심지어 훈련수당까지(매월 20만원)를 지급받게 되어 취업에 희망하는 고등학교 졸업생이나 대학 출신에게 인기 있는 직업교육훈련 기관이다. 또한, 산업체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기계/전기/전자/IT 분야 및 기타 산업분야의 신기술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실시하여 재직근로자들의 직무능력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기관이다. 김순기 기자

## 광주송정도서관, 시민 위한 문화강좌 운영 2010년도 상반기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송정공원 숲속에 자리한 광주송정도서관(관장 김경욱)은 평생학습시대에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생활 향유와 평생학습 욕구충족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상반기 문화강좌를 개설하며 수강생을 모집한다. 2010년도 상반기 시민을 위한 문화강좌는 3월 9일부터 6월 24일까지 4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며, 수강료는 강좌별로 4개월 과정에 5만원이다. (한글교실은 무료) 개설강좌는 바른자세와 의식집중을 위한 건강요가, 정서서법의

이론과 실기로 대한민국서예대전 등 각종 회화대회에서 특선 및 입선을 배출한 서예교실, 우리말? 우리글이 어려운 한글 초보자(노인계층)를 위한 한글교실(초급, 중급)의 4개 강좌이며 수강신청 기간은 2월 9일부터 3월 3일까지 광주송정도서관 문화정보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수강생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송정도서관 홈페이지(http://songjung.gen.go.kr) 평생교육 코너의 문화강좌운영에 안내되어 있다.

대한민국 Clean Energy의 선두주자, KIECO의 꿈은 그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1994년 100% 민간투자사업으로 설립된 우리 나라 경제 성장과 함께 세 번 KIECO가  
이제 KIECO는 Clean Energy의 4대 기업,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 기업으로 나서 대한민국을 에너지 강국으로 만드는 중입니다. 우리 시공합니다.  
이 강국의 모토는, 더 큰 꿈을 위해 우리는 KIECO를 지켜야 합니다.

KIECO  
한국전력공사(주) KIECO